

연구보고서
2006-11

한민족 문화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

충남발전연구원
CDI

ISBN · 978-89-6124-001-7 93030

연구보고서
2006-11

한민족 문화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

이명기 외

이명기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지역사회내의 현장체험학습장 활용 프로그램 연구」(1999),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연구」(2004),
「굿뜨레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2005) 등이 있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한민족 문화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

이명기 외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1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내용 | 3 |
| 3. 선행연구 분석 | 5 |
| 4. 연구방법 | 7 |
| 제 2 장 한민족문화허브 사업의 배경 | 9 |
| 1. 한민족문화허브의 시대적 배경 | 9 |
| 2. ‘한민족’ 개념의 정의 | 15 |
| 3. 한국문화 교육 정책의 흐름 | 18 |
| 제 3 장 한민족문화허브 설립 사업의 기본 구상 | 23 |
| 1. 기본 방향 | 23 |
| 2. 사업 비전 및 전략 | 27 |
| 3. 추진체제 및 과제 | 30 |
| 제 4 장 사업 내용 | 36 |
| 1. 사업 내용의 개요 | 36 |
| 2. 사업 영역별 내용 | 38 |
| 제 5 장 사업 영역별 프로그램 | 46 |
| 1. 언어교육 | 46 |
| 2. 적응교육 | 56 |
| 3. 문화교육 | 89 |
| 참고문헌 | 95 |

표 목 차

| | |
|---------------------------------|----|
|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 6 |
| <표 2> 주요 국가별 언어·문화교육 사례 | 12 |
| <표 3> 문화관광부의 한스타일 지원 전략 | 13 |
| <표 4> 한민족과 하나의 민족 정책개념 비교 | 26 |
| <표 5> 종합타운방식과 네트워크방식 비교 | 33 |

그림목차

| | |
|-----------------------------|----|
| [그림-1] 한민족의 확산적 개념화 | 25 |
| [그림-2] 한민족문화허브 사업의 구상 | 27 |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진전과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2005년 국내의 출입국자가 3,263만명으로 1995년(1,601만명) 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2005년 말 체류 외국인인 747천명(전체 인구의 1.4%)으로 10년만에 1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도 345천명('05년말)으로 1995년(142천명)에 비해 142%나 증가했다. 또한 2005년도 총 결혼건수(334,030건)의 13.6%인 43,121건이 국제결혼으로 1995년(13,494건)에 비해 2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주자들이 급증하여 향후 빠르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인종 간 통합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은 이주민이나 혼혈인 등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별 상황은 세대 간 대물림되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적으로 낙오된 나라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 장기적인 사회불안 요인이 됨은 타 선진국의 사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이민자들 소요사태 같은 인종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화 되면서 국경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종교,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성장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이민족이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삶의 양식을 요청하고 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단일한 요소로 구성된 경우가 드물다(김광익, 1998). 정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은 국가나 민족이란 실제로 수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경쟁과 알력 상태에 있음에도 마치 동질적인 문화에 기반 하여 하나로 잘 통합한 단일된 것처럼 보이는 상상적 공동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의 우리 사회의 변화도 다양한 이질적 민족들과 문화들이 동일한 국가 안에서 급격하게 소통하면서 생기는 변화로 그것은 우리 사회의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다문화 사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 아니라 ‘단일문화’ 즉 ‘한국문화’만이 강조되고 있다. 순혈주의를 자랑하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따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외국 유학생, 해외 동포 등의 다문화적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더욱이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부족하다. 이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곽병찬(2006)은 이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자국에 알리는 전위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글 문화권역 확대와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외국인들을 통한 우리 문화와 타문화 연계를 지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교빈(2005)은 문화는 최고의 상품이며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관광부가 운영하는 해외문화원과 각국 현지 대학에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을 설립 계획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주자에 대한 복지적 관점과 아울러 한국 문화 세계화 전략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 차원에서 본 연구는 이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는 현재 외국인을 위한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의 지원 기구가 있는 자치단체는 경기도의 안산시와 광주군, 시흥시, 인천시 남동구, 경남도 김해시 등 6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170개 시·군·구에는 지원 기구가 전무하다. 행정 조직

에 외국인 전담지원 조직이 설치된 곳은 안산시의 외국인복지과가 유일했다. 최근 그 유입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책의 이념과 전달 체계, 네트워크 등에서 어떠한 계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충청남도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한국 문화 교육기관은 물론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조차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차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 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문화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통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어 가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결과로 우리에게 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민족문화허브의 설립과 운영은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구상으로 한민족문화허브 설립의 추진 비전과 체제, 내용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2010년 충남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과 공주대학교의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충남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열린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한민족’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민족문화허브’에서 ‘한민족’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흐름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의 발전은 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보다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시대적 영향으로 다민족간의 인적 교류,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민족문화허브’는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

‘한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에 포함하는 대상이 다르고 기본방향 및 그 정책과제 또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정책이 대상자별로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지만 그 대상자 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나 기본방향 및 목적 등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별적으로 ‘한민족문화허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것들과의 ‘한민족문화허브’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셋째, 사업의 추진 비전 및 체제, 내용 등은 무엇인가?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 지원대책은 단편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현상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중앙-시도-시군구의 공공 전달체계나 지역사회 내의 공공-민간의 네트워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제공되기 시작한 프로그램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국어 교육의 경우 교재 개발 및 교육전달 체계가 미흡하다. 즉 사업의 추진 비전과 체제, 내용 등의 기본 구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자별로 직업 및 처해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그들 모국어로 발행된 생활안내책자나 한국어교재, 한국어 테이프, 통역서비스 등은 그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현실적으

로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교육, 적응교육, 문화이해교육의 영역으로 나누어 대상자 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기관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단일 지자체에서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관점과 그 추진 체계 등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 구 분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주 요 선행 연구 | 1 | <p><과제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그리고 지원방안></p> <p>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실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 제시</p> | <p>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와 그 실태 파악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 및 자녀의 학교 적응문제 - 설문조사분석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 및 자녀교육 실태 등 |
| | 2 | <p><과제명: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p> <p>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측면에서 논할수 있는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현재 부처의 개발 및 활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외인적자원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의 방향과 다루어야 할 정책의 영역과 범위, 주요 정책과제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인적자원의 대상과 범위의 설정을 위한 국내외 자료 탐색 - 국외인적자원 관련 연구자와의 심층면담 -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정책제언의 현실성 검토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인적자원정책의 대상 및 범위 설정 - 대상별 국외인적자원의 현황과 활용상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파악 - 외국의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례의 시사점 분석 -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과제 도출 |
| | 3 | <p><과제명: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방안></p> <p>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전북지역 외국인 여성들의 정착지원방안 마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여성 관련 정책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 국내외 자료 조사 - 전북지역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 외국인 여성 현황 - 외국인 여성의 문제와 지원프로그램 -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생활실태 - 정착 지원 방안 |

<표 1> 계 속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본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민자 및 자녀, 유학생, 산업체 연수생,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이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새터민 등이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 계획과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상과 콘텐츠를 개발·제시함 - 재외국민과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국내 청소년과 거주 외국인의 상호 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등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서 한민족문화허브 설립의 필요성 및 개념정립 -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 산업체 연수생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각종 통계 자료 활용 - 연구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립한 정책 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 협의회 개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한민족 문화허브(가칭 한민족마을) 설립의 필요성 및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장기비전과 구체적 추진 방향 수립 -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이 반영된 한민족문화허브(가칭 한민족마을)의 설립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또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와 연계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문화체험상품 등의 콘텐츠 개발·제시 |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문헌연구, 전문가와의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

우선 ‘한민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관련된 각종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민족’의 개념에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자 최신 언론 보도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민족’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민족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언론 보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탈북자’ 등 그들에 대한 연구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최근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보고서 등이 많이 이용되었으며 최신 보도 자료 또한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효했다. ‘한민족문화’의 개념이 광범위한 가운데에서 타기관이나 연구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기도 했다. 또한 ‘한민족문화허브’ 사업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각종 문헌과 최신 보도 자료 및 정책 보고서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본 사업의 관련을 해명하기 위해 정책보고서, 언론 인터뷰 자료, 최신 언론 보도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정책 보고서와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립한 정책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보다 정확한 현장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였다. 또한 ‘한민족문화’라는 명칭의 광범위성과 모호성 때문에 연구 범위 설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본 연구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와 ‘백제문화권’ 완공, ‘한민족문화허브’의 관계를 규명하고 본 연구의 역할을 가늠 해보는 데도 결정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반영되었다.

제 2 장 한민족문화허브 사업의 배경

1. 한민족문화허브의 시대적 배경

1) 다민족·다문화주의 시대

최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를 넘어서는 등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4천 878만2천274명의 1.1%에 해당하는 53만 6천 627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실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우리의 오랜 고정 관념을 틀을 깨고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시대로의 사고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뿌리 깊은 순혈주의 국가인 한국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민자 숫자가 급속히 증가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년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나 된다고 한다. 지난해 몇 개 군은 농촌의 결혼 건수 중 40% 가까이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제 다민족 다문화의 열린사회를 현실로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전홍식, 2006).

그러나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통합할 정책적 지원은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각 부처가 단편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현상대응에 치중하고 있고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공공전달체계와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네트워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 예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적응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를 넘지 못해 파경을 맞는 가정도 늘고 있다. 전국 21개소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체계성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을 지원하는 당국의 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민간단체와 협조 체계를 갖춰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유입된 이민자들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 조치라고 본다(전홍식, 2006). 충남도청이 충남지역 이주 외국 여성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결혼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72.8%(1103명)는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등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국내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것만 봐도 문화적응은 고사하고 말을 하기 힘든 외국인 여성들의 힘든 삶을 알 수 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7400여명, 도내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이 1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안정이나 사회통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가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그들에게 우리 글, 우리 문화만을 강요한다. 우리 문화만을 그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동안의 한민족 문화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나 상생하는 제3의 문화로서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박천웅, 2006).

세계화에 따른 다민족국가 체제를 이룸으로써 일원화 정책보다는 이런 다문화주의가 현재 대세로 작용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특정국가가 아닌 세계를 한 국가로, 세계시민으로 지향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의 시대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문화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창조해내기 시작한 모든 정신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 말이다.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

습 등 인간의 정신 작용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당대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의 표현이며, 가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가 오랜 역사 동안 나라별로 축적되어 왔고, 오늘날은 그 축적된 유형·무형의 문화 자산을 보고 즐기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 활동이 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경제수준은 높아지고, 글 깨우침이 넓어졌으며,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있고, 교통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간의 문화자산이 볼거리 즐길 거리로서 이용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형성된다.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문화의 가치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문화 자원의 계속적 발굴이고, 둘째는 그 가치 해석과 체계화이며, 셋째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재구성이다(박민수, 2002).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는 바로 문화산업'이라고 지적했듯이 문화예술, 이미지, 창의력이 기반이 되는 문화 콘텐츠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최강, 2003)

그렇다면 한국(정신)문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박민수는 한글이야말로 우리의 얼이고 문화이고 미래 창조의 가장 간곡한 매체며, 그 속에 우리 문화 정체성의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박민수, 2002). 일찍이 영국은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는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은 '괴테 인스티튜트', 일본은 '일본문화원', 중국은 '공자학원'을 운영하며 21세기는 문화자본 시대로서 '문화 강국은 곧 경제 강국'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표 2> 주요 국가별 언어·문화교육 사례

주요국가별 사례

- 영 국 : 브리티시 카운실(1934 설립)
 - ☞ 110개국 220개소, 연간예산 4.85억파운드(약 9,280억원)
- 프랑스 : 샹트르 펠뤼렐 프랑세즈 및 알리앙스 프랑세즈(1883 설립) 등
 - ☞ 120여개국 370여개소
- 독 일 : 괴테 인스티튜트(1951 설립, 1980년대말 확대)
 - ☞ 78개국 144개소, 연간예산 2억유로(약 2,700억원)
- 스페인 :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1991 설립)
 - ☞ 27개국 42개소, 8개국 인터넷 자동화어학센터 운영
- 일 본 : 광보문화원 및 국제교류기금(1972 설립)
 - ☞ 44개국 56개소
- 중 국 : 전 세계에 100여개 공자아카데미(공자학원) 설립 추진
 - ☞ 서울 강남 역삼동 제1호 공자아카데미 개원('04.11월)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전통문화세계화전략」

하지만 화약 냄새와 대포 소리만 없을 뿐 각 나라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문화전쟁의 세기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다. 힘 있는 나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의 무차별 문화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 애를 쓴다. 김교빈은 문화는 최고의 상품이며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듯(김교빈, 2005)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문화의 세계화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면 문화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가?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전통문화콘텐츠를 세계화한다는 목표 아래 ‘한브랜드(Han Brands)’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문화관광부, 2006).

<표 3> 문화관광부의 한스타일 지원 전략

| | |
|-----|--|
| 비 전 | 품위 있는 생활,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
| 목 표 | 우리나라 전통문화 콘텐츠(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통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 |
| 수 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 국가이미지위원회 안건 상정 논의 ○ 분야별 대표단체 육성 지원 ○ 시장 기능을 통한 한스타일 상품화 및 분야별 지역 거점 육성 ○ 한류 확산을 계기로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확충, 제도정비, 해외 진출 활성화 등 추진 ○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hanbrand」

각국은 자국 문화의 확산이 국가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월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부가 운영하는 해외 문화원과 각국 현지 대학에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한국문화의 세계화이며 ‘친한(韓)파’ 배양의 초석을 닦는 일이다. 아직 우리는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 체제 면에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나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 세즈’와 같은 것을 흉내 낼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명성이나 수준이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복원해내고 이를 밖으로 알리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김교빈, 2005).

3) 네트워크 시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1년에 부천, 춘천, 대전, 청주, 광주, 전주에, 2004년에는 부산, 대구에 설립됐다. 현재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관련 각 지역별 진흥원 및 지원센터가 10여개 이상 운영 중이다. 2002년 1월 대전을 시작으로 청주(2002.2), 부천(2002.3), 부산(2002.7), 대구(2002.8), 광주(2003.1), 제주(2003.4), 춘천·전주(2004.6), 목포(2005)가 각각 참여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천안지역 진흥원이 설립됐다. 이상과 같이 국정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문화사업 육성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2005년 6월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충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한 충남지역은 디지털 방송/영상분야를 주력업종으로 4개 분야(비즈니스, 연구개발, 교육/학습,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 문화산업지구를 충남문화산업 클러스터 제1호로 조성하고, 이를 핵심거점으로 삼아 아산, 공주, 부여, 연기, 보령, 태안 등 충남 전 지역을 네트워크로 구축할 계획이다(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충남도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체험 관광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서철모 충남도 문화관광국장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한번 보고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교육기능과 즐거움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테마파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제 문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 아스카 문화를 활용,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아스카문화촌’을 종합관광시설 ‘백제의 집’과 연계해 건설키로 하고 재일교포 및 일본 기업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스카 문화권과의 교류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산·학·연 교류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07/1/23).

현재 공주대학교에서도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이다. 부여 군수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화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을 강조 했듯 공주(공주대학교)와 부여, 충남도가 함께 연계해서 ‘한민족문화허브’를 축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cluster) 구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 또한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대학이나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연계한 거대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들 모두가 서로 상보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한민족' 개념의 정의

여기서 '한민족'이라 함은 그 의미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같은 핏줄을 이어 받은 민족이 그것이다. 이것은 '겨레'라는 의미와 통한다. 둘째는 그 의미를 확장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 다양한 민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사전적 의미로서의 '韓民族'

'대한민국'의 사전적 정의에서 '국민'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모두가 한민족(韓民族) 또는 한족(韓族)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현재 한민족을 구성하는 인구는 약 7,482만 명으로 이들 한민족은 세계 각 지역의 여러 나라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남한에 4,700만 명, 북한에 2,217만 명, 중국에 204만 명,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아메리카에 206만 명, 일본에 66만 명, 러시아에 49만 명, 라틴아메리카·유럽·중동·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39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다'(다음백과사전). 민족(nation)이란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공통사항에는 언어·종교·세계관·사회조직·경제생활, 그 밖의 생활양식 등이 포함된다. 인종이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을 분류하는 범주라고 한다면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범주이다. 또한 민족이라는 관념 자체가 문화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을 분류할 때 주된 기준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민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이고, 또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심성(心性)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와 민족 개념은 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민문화와 국민성이 발달하면서 국민이 바로 민족의 양상을 띠게 되

었다. 어쨌든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 자신에 의한 자각, 또는 집단에 의한 인식(민족의식)을 계기로 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민족의 경계설정에 사용되는 지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치는 것도 있고 사회생활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것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복, 언어, 가족형태, 일반적 생활양식 등의 명시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으로는 가치관·윤리관·행위기준 등 문화내용적인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민족 범주와의 사이에서 인원의 개별적인 이동·접촉·혼인·동화 등의 현상이 생겨 민족성의 지표가 되는 문화특징 자체가 변용된다는 것이다. 민족 범주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의 이분화 작용이 계속되는 것이다.

민족의 개념에 대한 견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형성의 지표로 제기되는 요소도 공통의 언어·문화·혈연(또는 겨레의식)·지역·민족의식·국가·경제·관습·전통·종교 등 다양하다. 이들 지표적 요소 가운데 비교적 보편성을 띠는 것이 언어와 문화이며 혈연·지연 등의 요소는 민족에 따라 형성지표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한국브리태니커, 2001).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대략, 한민족(韓民族)이란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를 지니며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내외 국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 정신이란 우리민족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의 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사고능력으로서의 지성의 온갖 산물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생활을 이끌어 오기 위하여 한국인의 지성이 이룩한 모든 사고내용과 사고방식 및 그 일련의 사고체계가 곧 한민족정신임에 틀림없다.

한민족의 개념을 사전적인 의미로 파악할 때 그 정책대상은 한민족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인구, 북한인구(탈북자포함), 해외동포 및 그 자녀 그리고 국외 거주 한국유학생이 해당될 것이다.

2)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한민족

최근 문학계에서는 '민족문학작가회의' 명칭 변경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 진보성향 문학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명칭에서 '민족문학'이란 표현이 빠진다는 보도(중

양일보, 2007/1/25)를 통해 ‘민족문학작가회의’의 김형수 사무총장은 ‘우리 문학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주로 해외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해온 젊은 회원들이 국제용 명칭을 원하고 있다’며 ‘민족문학’을 빼 ‘작가회의’로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래에 한국사학자인 박찬승은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라는 책에서 “식민지-분단-건국-산업화-민주화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족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민족주의 시대’를 넘어, 21세기 ‘국제협조, 국제연대의 시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남북한 통일을 생각하면 민족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소설가 황석영씨도 “개인적으론 이미 민족주의와도 결별했다”며 “세계가 거의 몇 초 만에 인터넷으로 소통되는 현실에서 아무리 내 감정이 소중해도 남과 말이 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족주의를 넘어 남과 소통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족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우선시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또 국제결혼도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중앙일보, 2007/1/26).

한국의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였다. 6월 항쟁 주역들의 핵심 이념도 민족주의였다. 하지만 민주화 20주년을 맞는 2007년, 진보 진영의 핵심 이념인 민족주의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명칭 변경 문제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사학자 김기봉은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민족 개념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혈연 중심의 단일 민족주의를 폐기하고 열린 민족주의로 민족 개념을 다시 정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열린 민족주의를 나는 탈민족주의로 보는데, 탈민족주의는 반(反)민족주의와 다르다”고 말 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개념 속에는 하나의 민족이란 통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선근(1978: 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여러 부족 국가들이 서로 분산과 난립됨에 따라 이들 부족국가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한겨레”의 “한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질적인 다문화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문화 다원주의적 이해와 상통된다. 다문화주의는 현재 한국의 국적법이 취하고 있는 순수한 혈통주의와 대비 된다. 순수혈통주의는 주로 혈연관계에 의하여 국가의 구성원을 정하려고 하는 입법주의이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문화주의를 고수해 온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한민족문화란 전통적인 의미로서가 아닌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예부터 쌓아온 고유한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백제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지만 다양한 외국인의 문화를 수용하여 통합하는 세계화된 한민족정신을 구축해야 한다.

한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해석한다면 이 때의 정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녀, 상사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그 대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다문화적인 대상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민족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한국문화 교육 정책의 흐름

「한민족문화허브」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교육 정책은 다양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한국계' 대상

한국문화교육정책의 대상을 '한국계' 사람들로 한정하여 우리 민족(韓民族)의 정체성 확립과 조국에 대한 사랑,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정책 방향이다. 즉 이 대상자들의 공통점은 '한국계' 라는 사실이다. 이 때 교육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주를 이룬다. 교포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민족문화교육이나 공주대학교의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 등과 같은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주대는 '한민족교육메카'로 특성화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주시를 '한민족교육특구'의 교육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마을의 건립과 남북한 교육연구센터, 해외동포 교육연구센터, 한민족 문화교류지원센터, 국제외국어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한국 직업 능력개발원 등 교육관련 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일정기간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체험 교육 즉, 교육, 역사, 윤리, 한문 교육 등과 홈스테이 및 문화탐방과 실습 등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는 남북한의 교육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동질성 추구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해외 입양아 및 교포 2세 교육을 담당한다. 그들이 모국인 한국에서 마땅히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공주대학교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 계획, 2006).

2) '현지민' 대상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국회문화정책포럼',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가 되어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

을 위한 토론회'(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린바 있다. 이날 국립국어원장 이상규는 축사에서 최근 한글과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의 확산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이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첫 단계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들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취업을 위한 한국어 학습 수요나 한국 유학을 위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붐은 그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국가가 이러한 한국어 보급의 호기를 맞아 제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한류(韓流)’를 통해 우리의 한글과 한국어 역시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문화코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김명곤, 2006). 또한 이장협(2006)은 이 자리에서 “언어는 문화코드의 바탕으로 국제화·정보화가 확산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질적 문화권역간의 정보소통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인류의 보편적 삶의 양식을 공유하게 하는 건인차”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세기 이후 서구 선진 각국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문화의 바탕인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대중가요와 TV드라마 등의 ‘문화상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류열풍’을 확산시킴으로써 한글창제 이래 한국어 문화권역 확장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일찍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보편적 문화코드로 보급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에 비해 우리는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가졌음에도 그 발전과 보급 위한 투자는 너무나 빈약한 현실이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스’는 현재 130개국의 1072개 센터에서 프랑스어와 문화를 가르친다.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은 220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144개도 일찍부터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 전문 기관을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년 사이에

125곳의 ‘공자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현지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공자학원’을 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뒤늦게 우리나라도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외 보급을 전담하는 ‘세종학당’을 설립하기로 했다. 해외 한국문화원 12곳을 비롯해 현지 대학이나 교육시설에 2011년까지 ‘세종학당’을 100곳 이상을 설립할 계획이다.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는 ‘언어학교’이다.

3)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앞서 살펴보았듯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4천 878만 2천 274명의 1.1%에 해당하는 53만 6천 627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2005년 말 현재 34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매년 7~8만 명의 신규 노동자가 입국하고 있으며, 그 만큼의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에 정착하는 아시안 역시 3만여 명에 이른다(곽병찬, 2006).

거주 외국인중 근로자가 47.6%인 25만 5천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 결혼이주자 12.2%인 6만5천 243명, 국제 결혼가정자녀 4.7%인 2만 5천 246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상사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등 기타가 35.6%인 19만 824명이나 됐다. 거주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6.1%, 24만 7천 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시아 23.0%, 남부아시아 6.3%, 미국 4.8%, 대만, 몽골 각 4.0%, 일본 3.6%등 순이었다. 이주 외국인 가운데 귀화, 출생, 인지, 결혼, 입양 등을 통한 한국국적 취득자는 7.4%인 3만9천525명이었다(연합뉴스, 2006/6/7).

그러나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통합할 정책적 지원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의 집단거주지역의 경우 지역슬럼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자녀의 정체성 혼란, 학교 내 부정적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58%가 6~10일, 29%는 1~5일 간 받

았다고 한다. 현지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는 이 교육은 한국의 문화, 경제, 산업, 언어, 기술, 기능 등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어서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입국한 뒤 한국어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곽병찬, 2006).

현재 입국해 있는 노동자나 배우자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들이 귀국하면 각국에서 한국의 문화 경제 역사를 알리는 문화적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주 외국인을 한글 문화권역 확대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정책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안으로 내실을 확충하면서 밖으로는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한(韓)문화 권역을 넓혀 나가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차별 없이 따듯하게 대우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자국에 알리는 전위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글 문화권역 확대와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곽병찬, 2006). 이제 이주외국인을 현재의 복지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는 적극적 관점이 요청되는 때이다.

제 3 장 한민족문화허브 설립 사업의 기본 구상

1. 기본 방향

1) 사업 개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민족의 개념을 첫째는 그 범위를 좁게 파악하여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넓은 의미로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서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민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은 첫 번째의 좁은 의미인 '한민족(韓民族)'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해서 본 사업은 넓은 의미의 '하나의 민족'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문화허브」 사업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고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둘째는 이질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열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외국인이 한글 문화권역의 확대와 한국 문화 전파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민족문화허브」라는 명칭은 공주대학교에서 계획 중인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와 유사하며 다소 그 취지와는 달리 좁고 폐쇄적인 의미의 '한민족(韓民族)'을 연상하기 쉽다. 따라서 사업의 명칭을 “하나민족문화허브”로 개칭함으로써 '하나의'민족이라는 개방적 개념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내부의 한민족을 비롯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한민족, 외부로 흩어진(디아스포라) 한민족들, 그리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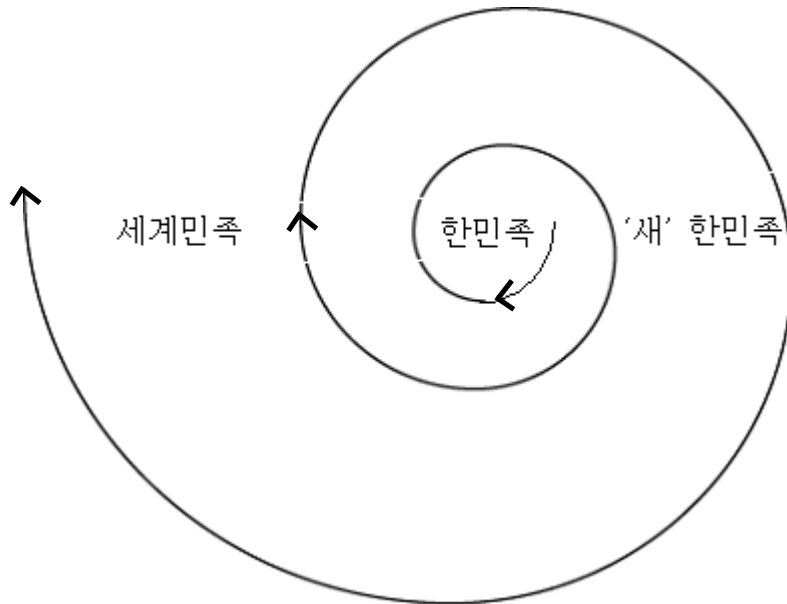
이는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세계적 적응력 강화라는 두 방향의 과제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 우리 문화와 새한민족 문화, 나아가서는 세계민족문화가 한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통섭(서로 사귀어 오감, 通涉, consilience)”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전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동(Think globally, act locally)로 인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의 문화 정체성은 민족의 고유성과 세계적 적응성을 공히 가져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문화는 서로 통하여 오감으로써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변증법적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본 사업은 한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문화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문화를 지향한다.

2) 사업 대상

대상자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공주대학교의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에서는 해외 동포 및 그 자녀, 해외 입양아, 탈북자 등 ‘한국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본 사업의 대상자는 다양하다. 그들은 단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정책 주된 대상자는 국내 거주 하는 외국인이다.

본 사업의 기본 구상에서는 이들을 「‘새’ 한민족」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새 한민족’이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한민족 문화에 접촉하여 한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한민족으로서 정체감 혹은 한민족에 대한 애착과 호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상사주재원, 외교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해당된다. 이 때 좁은 의미의 한민족 구성원인 해외 동포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공주대학교의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들 또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정책 방향과 그 대상은 아래의 그림

과 같이 핵심(Core) 한민족 정체성에서 새한민족으로, 다시 세계민족으로 확산되는 문화 정체성을 말한다.



[그림-1] 한민족의 확산적 개념화

따라서 본 사업은 정책 대상으로 광의의 한민족 개념으로 한국이라는 생활세계 안에서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화 되고 결국 세계 보편 문화를 지향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한민족문화허브사업의 정책 은 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확대되는 단계적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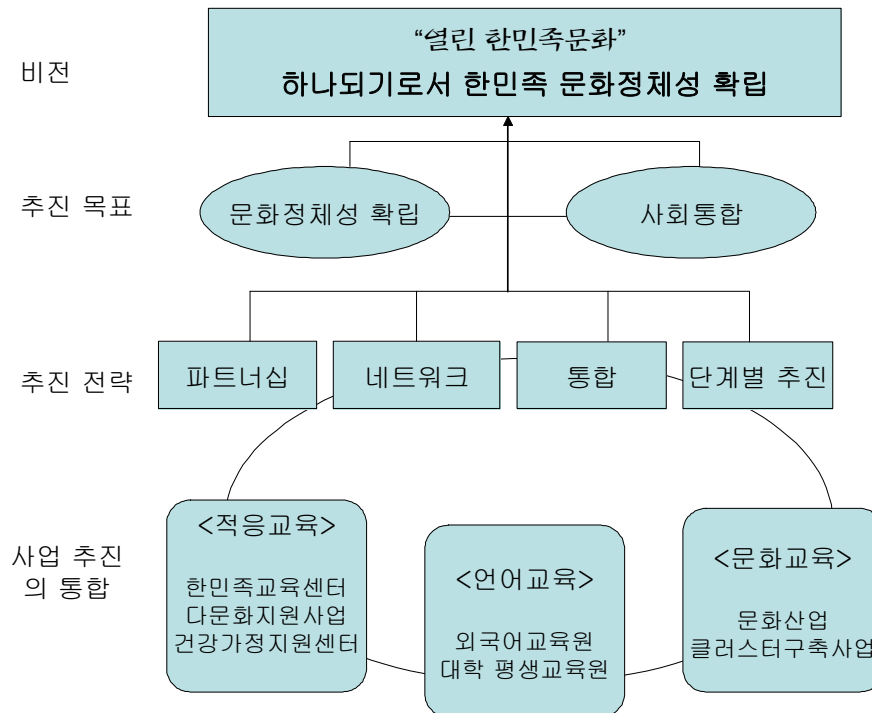
위의 사업 개념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책 개념이 나오게 되며,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제, 사업 목표 등을 개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민족과 하나의 민족 정책개념 비교

| 정책개념 | 한민족(韓民族) | 하나의 민족 |
|---------|---|--|
| 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문화체제 • 속인주의(순혈주의)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통합 및 다문화사회 실현 - 소수파문화, 여성문화를 수용하여 문화의 다양성 유지 및 평등성 실현 • 속지주의 원칙 |
| 사업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한민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북한의 주민 - 모든 해외동포 및 자녀 - 국외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 - 해외 입양아 - 다문화 소비자인 외국인관광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일반 시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 여성결혼이민자 - 다문화인(국제결혼자녀) - 외국인 유학생 - 새터민(탈북자) |
| 기본방향 |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고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외국인의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궁극적으로는 평등성을 실현한다. |
| 추진 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관련 사업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센터 - 논산 (선비문화) - 부여 (백제문화유적) - 공주박물관 - 공주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교육청 +외국어교육센터 - 시·군·구 단위 외국인지원센터 |
| 사업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 우리문화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 • 우리문화를 중요한 자산이나 경제적 가치로 승화 • 국내외 교육현장 간 지원 및 교류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동포 교육 및 지원 - 남북 교육 교류 지원 - 세계각지 '한국학교'(25개)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 국가간 협력 체계를 통한 교육 교류 - 국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체류 지원 •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사회적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 추진체계구축 •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 |

2. 사업 비전 및 전략

1) 사업 비전과 목표



[그림-2] 한민족문화허브 사업의 구상

한민족문화허브 설립 사업은 “열린 한민족문화”라는 캐치프레이지로 다양한 문화 보유자들이 한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 속에서 하나 되기를 지향한다. 이는 한국이라는 생활세계에서 통섭(通涉)하는 다문화·다인종의 연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민족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세계문화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다문화적 관점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 사업의 비전은 하나되기로서의 한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다양한 사업 대상들에게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본 사업의 추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공주대학교와 본 사업 각각 공통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주대학교에서는 해외동포지원 교육사업, 남북한 교육교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 및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과 한국문화산업 창출과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단계적인 접근은 즉, 언어교육, 적응프로그램,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때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대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대학교의 사업과 본 사업에서 각각 사업 내용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내용은 크게 언어교육, 적응교육, 문화교육 영역이 될 것이다.

2) 사업 추진 전략

이상의 사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1) 파트너십 전략

- ☐ 이주 한국인이나 거주 외국인들을 우리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파트너십 개념 강화
- ☐ 한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협력적 관계 찾기
- ☐ 일시적 트렌드나 변화하는 문화 흐름을 현 시점에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력적 파트너 인식이 요청됨. 따라서 한류 등의 아시아의 문화적 분위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십 확립

(2) 네트워크 전략

- ☐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전략을 활용하고자 함. 이는 충남 지역의 기존 백제역사재현단지, 박물관, 서원 등의 문화기반 시설과 공주대학교의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교육청의 외국어교육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의 지역의 거점 시설들의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상호 연계 됨
- ☐ 중앙의 허브 센터를 설치하고 이들 관계 거점 시설들의 역할 분담 방식을 택함으로써 재원 및 행정력의 효율성을 강화함
- ☐ 거점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집중화 사업과 함께 이주 여성 등의 생활권(마을 단위)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서브 허브를 만드는 브렌치 전략이 요청 됨. 이를 위해 지역 평생학습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마을에 ‘아웃리치’프로그램화

(3) 통합 전략

- ☐ 백제문화산업클러스터를 비롯하여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다문화지원사업 등 현재 다양한 주체의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
- ☐ 언어교육과 적응교육, 문화교육이 상호 통합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함

(4) 단계별 전략

- ☐ 단계적 정책 접근을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나 되기’로서의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

- 1단계 : 이주민과 다문화인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 및 정착지원
 - 2단계 : 외국인 유학생의 Gate way 프로그램 개설
 - 3단계 : 한국계외국인 동포교육(귀국동포, 방문동포 등)

※ 세계 각국 한국학교와 네트워크 형성하여 추진

☐ 외국인 마을의 설립을 통한 쌍 방향적 문화교류의 장

※ 이주여성 활용하여 우리 학생의 외국어교육과 이문화교육

☐ 한글과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 수립 : 외국인의 문화 전파 첨병 역할

3. 추진체제 및 과제

1) 추진 체제

(1) 추진 체제의 구성

☐ 도청의 관련 지원체계(교육협력팀)의 강화

여기서는 문화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이라는 사업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추진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자체 단위에서의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충남도청 차원에서는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기획관리실의 혁신정책기획관(교육협력팀), 도의새마을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속성상 교육청 및 대학 등 다른 교육 관련 조직과의 연계 협력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협력팀”에 본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시화함과 동시에 그 조직을 보강하는 체계가 요청된다.

특히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는 보다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외국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충남평생교육원에 「한국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방과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천안 지역의 아동에게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시·군 단위의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개별 시·군 단위에서도 외국인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복지과 여성복지팀 등에서 국제결혼여성 담당 업무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 전담 부서만으로는 본 사업의 규모나 지속성을 감당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시·군 단위의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과 외국인지원센터 조직을 유기적인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담당하게 된다.

- 한국어 교재 개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제작, 다문화 교육, 귀화 문제 등
 -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 외국인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외국인 멘토링 사업, 문화 체험 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자 활용
- 향후 계획 : 봉사팀 구성 · 운영

(2) 추진 체제 운영 방식

초기 영어마을 개념에서 출발한 본 사업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 대상들의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될 언어교육센터는 마을형 언어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충남교육청의 외국어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마을형 언어교육센터인 “영어마을” 이나 “국제교육특구” 등의 방식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요구된다. 경기도영어마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투자 경비가 막대한 것에 비하여 실효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청과 연계하여 외국어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경비적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두 사업 간의 목적의 상이성과 지원 행정 체제의 이분화로 인한 사업 연계의 어려움이 상존하게 된다.

언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위의 사업 추진의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을형 종합 Town 개발 방식

- 종합마을을 건설하여 이주외국인과 재외국한민족, 우리나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교육을 하게 되며, 외국인들이 묶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 포함.

<마을형 언어교육센터의 구성>

- Situation Zone + School Zone + Culture & Sports Zone

(문화체험, 체험거리) (교사, 강의실) (레크리에이션, 운동, 관람)

- ① Situation Zone : 외국분위기와 생활방식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외국어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음
- ② School Zone : 일반적인 외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교육관련 시설들
- ③ Culture & Sports Zone : 레크리에이션 및 운동을 포함한 클럽 활동 시설

- 예시) 경기도영어마을(안산, 파주), 제주국제영어타운(대정읍)

□ 네트워크 방식

- 언어교육센터/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이해교육센터 등의 복합화
-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들을 조정하는 헤드타워로서 한민족문화교육센터를 만들
- 기존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시설들을 활용함 : 공주대의 옥룡캠퍼스, 백제문화재현단지, 공주/논산지역의 박물관, 서원, 향교, 사찰 등

<표 5> 종합타운방식과 네트워크방식 비교

| 구분 | 종합타운방식 | 네트워크 방식 |
|----|---|--|
| 내용 | 종합마을 건설하여 외국인 거주촌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언어 및 문화교육 가능함 | 기존의 거점 시설들을 묶어내는 네트워크 방식을 취함 |
| 장점 | 외국어교육 강점 다문화촌이라는 상징성이 높음 | 비용 절감 기존의 다양한 목적의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 |
| 단점 | 유지 비용 과다 | 각 기관의 유기적 협동이 요청됨 |

네트워크 방식은 현재 사업의 규모나 시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동이 요청된다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조정·연계하는 헤드타워를 만드는 방식이 요청된다. 이는 다양한 관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을 도청에서 지원할 때, 그 중심적 허브 역할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공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교육센터 사업을 본 사업의 언어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주여성 및 노동자, 다문화인(국제결혼자녀)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며, 재외 해외동포 및 해외 입양아들을 위한 국제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대학들에 늘어나는 많은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언어교육원 등에서 분담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사업 경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도청과 공주대학교 등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추진 과제

(1) 정책 대상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 관련 실태조사
-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실태 조사
-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실태 조사
- 지자체 거주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
- 외국 유학생 현황 등

(2) 전담조직

- 행정 지원체계 : 도청 교육지원팀/ 교육청
- 연구개발 : 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
- 사업 추진 조직 : 한민족문화허브 지원센터(헤드타워 지정 사업)

(3) 시설 설립

- 허브 기관으로서 한민족문화교육센터 설립(혹은 지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이나 대학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사업의 기획을 통해서 기존의 연관 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 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4) 인력: 전담인력, 강사, 자원봉사

- 교육 및 연구 전문 인력을 전담 인력화
- 강사뱅크제 운영 :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는 기존의

지역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가운데 우수한 강사
뱅크를 만들어 활용함

- 자원봉사센터의 활용 : 현재 관련 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과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본 사업 관련 인력 요청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지지자를 확보함. .
- 외국인들이나 귀화외국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해당 문화와의 교류를
확산시킴

제 4 장 사업 내용

1. 사업 내용의 개요

| 구 분 | 대 상 | 교육내용 | 기간 /일정 | 강좌성격 |
|----------|------------------|--|-----------|---|
| 언어 교육 | 이주결혼여성 및 그 자녀 | -생활중심한국어 -전통문화체험 | 4주 | -단기생활한국어과정 -생활안내 한국어 -전통문화체험 |
| | 외국인 근로자 | -노동현장 및 생활중심 한 국어 -전통문화체험 | 4주 | -단기생활한국어과정 -작업현장한국어 -전통문화체험 |
| | 유학생 (단기) | -생활한국어 -전통문화체험한국어 -역사탐방한국어 | 4주 | -단기한국어능력향상 -문화체험 학습과 연계 -능력별 다양한 교육 |
| | 유학생 (장기) | -Academic Korean -한국어능력시험지도 -수준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사탐방, 문화체험 | 12주 | -장기한국어연수과정 -수준별 학습 -역사탐방, 문화체험 학습 |
| | 국내 청소년 | -이주민의 모국어인 동 아 시아 언어교육 | 4주 | 동아시아 언어학습 |
| 적응 교육 | 결혼이민자 | -생활스트레스에 대처교육 -육아 및 자녀교육 -배우자 등 관련인 대상프 로그램 -국제결혼가정에대한 추수관 리 및 지도인력양성 | | -생활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 -집단상담 및 교육 |

| 구 분 | 대 상 | 교육내용 | 기간/일정 | 강좌성격 |
|----------|------------------|---|---|---|
| 적응 교육 | 국제결혼 자녀 | -또래 관계 형성 및 적응 프로그램 -학교적응 및 학습 적응 프로그램 -관련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인에 대한 추수 관리 지도 인력 양성 교육 | -대응력증진P G입국후1주~ 12주 -추수관리및 지원:대응력 증진교육 후 1년까지 | 또래관계 형성 및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대 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
| | 외국인근로자 | -직장 및 생활 적응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직 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수관 리 및 지도자 양성 교육 | -이해와 포용능력의 개발접촉 1주에서8주사 이, 연중 편리한 시기에 |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스트레스 및 환경 개선 대처 프로그램 |
| | 새터민 (탈북자) | -생활 적응 대처 교육 프로그 램 -새터민에 대한 추수관리와 지 도자 양성교육 | |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및 조기 적응을 위한 스 트레스 대처 요령 |
| 문화 교육 | 거주외국인 및 가족 | -생활문화이해교육 -사회문화이해교육 -전통문화체험학습 -다문화가족축제 | | - 거주 외국인 및 가족 간의 상호문화이해 - 대상별, 상황별 맞춤 형 프로그램 |
| | 한국청소년 및 거주외국인 | -정규수업 -워크숍 -여행자단(caravan) -친목회 등 | 대상별, 능력 별, 수준별 국적별, 프로 그램별 연중 상시운영 | 상호 문화 교류 증진 |
| | 재외국민, 동포 | -‘한스타일’ 문화프로그램 -템플스테이 -홈스테이 -전통문화체험 | | 한민족정체성확립 |

2. 사업 영역별 내용

1) 언어교육 “세종(世宗) 프로그램”

(1) 목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그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언어를 교육하는 언어교육 사업은 상호 교육의 의미로써 한민족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근본을 이루는 사업이다.

(2) 방향

이러한 언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언어와 관련된” 문화교육이다. 여기에서 문화란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 내려질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문화란 “high culture” 의미의 “지식, 예술, 전통 등 인간 정신의 표현과 가치”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문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현상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교육은 대상자별 처해진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즉, 국내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도 단기프로그램 참가자와 장기프로그램 참가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단기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언어교육은 전통문화의 체험방식이 될 것이며, 장기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의 측면에서 언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 여성의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문화의 개념은 또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삶 자체가 노동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들의 근로환경은 대부분 열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에게 한국사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survival Korean을 가르치는 것은 생활과 교육

을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언어교육이라는 것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과도 달라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 여성에게 있어 언어교육과 관련된 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활력소와 재충전 (refreshment)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 목적 : 외국인 조기적응과 정착 지원 및 쌍방향적인 국제 교육 이해 증진

☐ 대상 : 국내 이주민(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그 자녀/우리나라 청소년

☐ 내용 : 한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및 기타 해당 이주민 모국어)

☐ 방법 :

<대상자별 맞춤교육>

※ 이주 여성 등을 활용 그 자녀 및 국내 청소년 외국어교육

-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과도기적으로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한국어·문화적응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 시범 실시
- 읍·면·동단위로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등과 연계하여 이민자에게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 동행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인력 배치
- EBS 등을 통한 언어·문화이해 교육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 Outreach program>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등 소외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양육문제, 교통문제, 가족의 반대 등 가정·경제적 문제 등으로 한국어 교육 등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이민자가정 방문
- 이민자 가정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계획을 세운 후 공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 기대효과 :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 사회 통합에 기여함

2) 적응교육 프로그램

□ 목표

○ 현황 파악

- '새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사항, 생활 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그 결과, 적응 촉진을 위한 지원 요구 파악
- '새 한민족'과 접촉하는 관련인을 대상으로 '새 한민족'과의 생활과정에서 겪는 갈등, 스트레스, '새 한민족'에 대한 이해와 포용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곤란과 대처 방법, 그 결과, 이해와 포용을 위한 지원 요구 파악

○ 대응력 증진 프로그램의 제공

- '새 한민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예측된 문제 상황에서 대응력을 증진시키도록 돕는다.

○ 지속적인 추수관리

- '새 한민족'이 한국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
- '새 한민족'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해와 포용 능력의 개발

- 한민족이 '새 한민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곤란을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 방향

- '새 한민족'이 한국 문화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적응 과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 한민족이 '새 한민족'이 한국 문화에서 안정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적응과정의 곤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목적 : 이주자의 조기 적응 및 성공적인 정착
- ☐ 대상 : ‘새’한민족 (이주자 및 거주외국인)
- ☐ 내용 :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요령
- ☐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집단교육과 집단상담 및 실습
- ☐ 기대효과 : 성공적인 정착과 충남도정 이미지 제고

3) 문화(이해)교육 “왕인(王仁) 프로그램”

(1) 문화이해교육-적응 촉진

- ☐ 개관
 - 결혼이민자가족 등 거주 외국인의 자기정체성과 자부심을 향상 시키고 지적 성장 및 당사자의 사회적 적응 과정을 지원
 - 또한 이들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좋은 발판이 됨
 - 자녀들과 남편 및 시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통합적 교육
 - 장기적으로는 각 나라 문화를 지역사회발전의 소중한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교육
- ☐ 대상 :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가족(자녀, 남편, 시부모 포함)등 거주 외국인
- ☐ 목적 : 거주외국인의 조기적응 및 정착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방향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남편, 시부모, 확대가족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기타 거주 외국인을 진정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여 결혼이민자가족 및 기타 거주 외국인과 연대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내용(영역)

- 생활문화이해교육 : 가정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생활정보
- 사회문화이해교육 : 한국문화 수업(한국유네스코위원회 자료)
- 전통문화체험학습 : 지역 내 역사 및 문화체험, 16개 문화체험프로그램(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축제 : 본국음식 및 한국전통 음식 만들기, 각국의 (전통)음악 감상 및 (전통)의상 전시회, 각국의 영화 상영 등

□ 방법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도교육청, 농업기술원, 충남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문화원 도 지회 등이 공동 참여하여 프로그램별 대상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교육
-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문화가이드북 및 생활안내책자 발행
- 한국어 교육자와 통역자의 교차 수업

□ 기대효과

-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
- 학습활동 및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상호 존중감과 공동체의식 형성
-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자아 정체성 확립

(2) 다문화(국제)이해교육

CCAP :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개관

-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
- 자라나는 세대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 실시
- 문화이해를 통해 상생·평화·인권·관용 등의 가치 습득 및 세계시민의식함양

☐ 대상 : 주한외국인 및 한국 초, 중, 고, 대학생, 교사

☐ 목적

- 학교 교육에서의 국제이해 교육의 필요성 제고
-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한국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 주한 외국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연대 의식 강화

☐ 방향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이해교육 소양을 갖출 수 있고
-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용(영역)

- 정규수업 : 거주 외국인이 한국학생에게 그들의 문화 수업
- 오리엔테이션 : 새로운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교사들과의 만남
- 워크숍
- 여행자단(caravan) : 자원봉사자와 참여 학생들과의 캠프
- 친목회 :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친목 도모 및 상호 이해
- 감사 만찬

☐ 방법

- 거주 외국인 및 한국학생의 자원봉사자 활용
- 국내 초·중고 학교의 참여 희망
- 지방협력기관 활동 매뉴얼 발간
- 지방협력기관 지원 및 신규 지방협력기관 발굴

☐ 기대효과

- 국내 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 및 올바른 문화 간 이해 증진
- 한국 초, 중, 고등학생 및 교사들의 문화 간 이해 능력제고

(3) 한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 개관

- 재외국민과 동포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
- 고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세계 속에 우리문화 전파자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함

☐ 대상 : 재외국민과 동포 등

☐ 목적 : 재외국민과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

☐ 방향

-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의 원형에 가까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적인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내용(영역)

- '한스타일(Han Style)' 문화 :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 등
- 한국전통문화와 깊이 있는 정신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 홈스테이
- 전통문화체험

□ 방법

-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 박물관 교육

□ 기대효과

- 이상적인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우리 전통 문화 전파에 긍정적 효과
- 한국 전통 문화 발굴

제 5 장 사업 영역별 프로그램

1. 언어교육

1) 이주 결혼 여성 및 그 자녀

-
-
- ◇ 이주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 한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이 요구된다.
 - ◇ 따라서 그들에게는 생활 한국어(survival Korean) 교육과 문화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
-

□ 개요

- 운영기간 : 4주 단위
- 대상 : 결혼이민자여성과 그 자녀
- 방법 : 거주지와 교통편의 제한점 때문에 hub나 center에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거주지 중심의 sub-hub를 운용하여 교육담당자를 가까운 거리의 sub-hub로 파견하여 교육.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프로그램 모두 hub에서 직접관리
- 내용 : 수요자 중심의 생활 한국어(survival Korean) 교육과 문화체험교육

□ 세부내용

- 이주 외국인 여성이나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 한민족의 일원으로 살아나가야 하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한국어 (survival Korean)를 교육하고, 또한 생활의 재충전 기회로서의 전통 문화 체험 교육 병행

□ 교육계획

| 주차 | 한국어 교육마을단위(장소 : sub-hub) | 전통문화체험교육(장소 : hub) |
|----|---|--------------------|
| 1 | ○ 생활 한국어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문장단위로 표현함 - 한국생활에 관련된 기초어휘를 익힘 | 한국 전통 무용 배우기 |
| 2 | ○ 생활 한국어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문장단위로 표현함 - 한국생활에 관련된 기초어휘를 익힘 | 한국 전통 놀이 배우기 |
| 3 | ○ 생활 한국어 - 일상생활 표현 및 적절한 기능어 - 간단한 주문, 요청, 제안 표현 익힘 | 한국 전통 악기 배우기 |
| 4 | ○ 생활 한국어 - 다소 복잡한 일상적 주제를 문장으로 표현 - 시제의 적절한 표현 | 한국 전통 의식 배우기 |

□ 기대효과

-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2) 외국인 근로자

-
-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삶 자체가 노동이며 그들의 근로 환경은 대부분 열악하다.
 - ◇ 그들에게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생활 한국어(survival Korean)를 가르치고 삶의 활력소와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

□ 개요

- 운영기간 : 4주 단위
- 대상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 방법 : 거주지와 교통편의 제한점 때문에 hub나 center에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거주지나 직장 중심의 sub-hub를 운용하여 교육담당자를 가까운 거리의 sub-hub로 파견하여 교육.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모두 hub에서 직접관리. 근로시간 때문에 day program은 불가능하고 evening program이나 weekend program만 가능
- 내용 : 수요자 중심의 생활 한국어 (survival Korean) 교육과 문화 체험 교육

□ 세부내용

-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한국어 (survival Korean)를 교육하고, 또한 전통 문화 체험 교육을 병행.

□ 교육계획

| 주차 | 한국어 교육(마을이나 직장단위 sub-hub) | 전통문화 체험 교육(hub) |
|----|---|-----------------|
| 1 | ○ 생활 한국어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문장단위로 표현함 - 한국생활에 관련된 기초어휘를 익힘 | 한국 전통 무용 배우기 |
| 2 | ○ 생활 한국어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문장단위로 표현함 - 한국생활에 관련된 기초어휘를 익힘 | 한국 전통 놀이 배우기 |
| 3 | ○ 생활 한국어 - 근로 현장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힘 | 한국 전통 악기 배우기 |
| 4 | ○ 생활 한국어 - 근로 현장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힘 | 한국 전통 의식 배우기 |

□ 기대효과

-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 본국으로 귀국해서 한국문화전과 역할 수행함

(3) 단기 외국 유학생

-
- ◇ 국내 단기방문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험과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한 차원 낮은 언어 교육이 적합하다.
-

□ 개요

- 운영기간 : 4주(1년에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개설), 수업은 주 5일
- 대상 : 국내 단기방문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동포
- 방법 :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유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외국어 교육원에 위탁하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hub에서 운용
- 내용: 대상자에 필요한 생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 세부내용

- 단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general module의 생활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다도, 예절, 전통악기 그리고 음식체험 등을 통한 문화전통 체험, 공주와 부여 인근의 전통마을 및 전통 생활 문화체험, 역사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 운용

☐ 교육계획

| 주차 | 한국어교육 | 문화체험 |
|----|---|------------------------|
| 1 | ○ 생활체험을 위한 한국어 (1단계)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문장단위로 표현함 - 한국생활에 관련된 기초어휘를 익힘 | 한국전통음식체험 (예: 김치만들기) |
| 2 | ○ 생활체험을 위한 한국어 (2단계) - 일상생활 표현 및 적절한 기능어 - 간단한 주문, 요청, 제안 표현 익힘 | 한국재래시장체험 |
| 3 | ○ 전통문화를 위한 한국어 - 일상생활 표현 및 기초 어휘 - 전통건축과 예술품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 | 전통문화학교방문 (전통건축체험하기) |
| 4 | ○ 역사탐방을 위한 한국어 - 일상생활 표현 및 기초 어휘 - 유적물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 | 백제유적지방문, 독립기념관방문 |

☐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 우리 전통문화와 그 우수성을 알림

(4) 장기 외국 유학생

-
- ◇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장기 유학생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단기 유학생보다 한 차원 높은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 ◇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

□ 개요

- 운영기간 : 1년에 2학기(봄, 가을)를 개설, 한 학기는 12주로 구성
- 대상 :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동포
- 방법 : academic module의 한국어 집중교육 + 문화체험. 한국어 교육은 각 대학의 외국어 교육원에 위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hub에서 운용.
- 내용 :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현황에 대한 교육을 통한 실용적인 한국문화교육

□ 세부내용

-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Academic Korean 교육과 더불어 한국어 능력시험의 지도. 한국어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수준별 분류. 이와 더불어 현장 체험 및 계절 별 전통 명절 체험과 신문이나 매스컴을 이용해서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현황에 대한 실용적인 문화교육 실시. 문화교육의 내용도 한국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

□ 교육계획

| 단계 | 과목명 | 시간(주당) |
|------------|--|--------|
| 초 급 | 한국어 말하기(1) | 5 |
| | 한국어 듣기(1) | 5 |
| | 한국어 읽기(1) | 5 |
| | 한국어 쓰기(1) | 5 |
| 중 급 | 한국어 말하기(2) | 5 |
| | 한국어 듣기(2) | 5 |
| | 한국어 독해 | 5 |
| | 한국어 작문 | 4 |
| 고 급 | 한국어 문법 | 5 |
| | 한국문화읽기 | 5 |
| | 매체듣기 | 4 |
| | 한국어 대화 | 5 |
| | 매스컴 한국어 | 4 |
| 역사탐방, 문화체험 | ○ 각 단계별 구별 없이 한 학기 1회 이상 실시 ○ 한국의 문화 유적지 답사 및 전통문화 체험 ○ 계절별 전통 명절 체험 | |
| 개별학습 | ○ 한국의 전통문화를 개별적으로 체험 학습 | |

□ 기대효과

-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렇게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문화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
- 국제이해교육 교류 활성화

(5) 이주 결혼 여성들을 활용한 국내 청소년 외국어 교육

-
- ◇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동시에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이는 상호교육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한민족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 개요

- 운영기간 : 방학 4주 집중반 혹은 학기중 주말반
- 대상 : 국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 방법 : 이주민 여성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모국어를 국내 청소년들에게 교육. 대상자별 맞춤교육 실시
- 내용 : 이주민의 모국어인 동아시아 언어교육

□ 세부내용

- 이주 여성들의 모국어, 특히 동아시아어는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습할 기회가 적음. 따라서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동시에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동아시아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상호교육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한민족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단 이주 여성들은 언어교육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담당자 연수가 필요

□ 교육계획

-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희망과 여건에 따라 방학 4주 집중반 및 주말반 운영가능

□ 기대효과

- 자체적으로 수급하기 힘든 부분을 이주민을 활용하여 분담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즉,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동시에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동아시아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상호교육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한민족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2. 적응교육

1) 결혼 이민자

(1) 국내 생활 스트레스 대처 교육 프로그램

-
- ◇ 결혼 이민자들이 국내 결혼생활과정에서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 ◇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가정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생활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 개요

- 운영기간 : 입국 1주에서 12주 사이
- 대상 : 충남지역 거주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 배우자와 가족이 포함될 수 있음)
-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집단교육과 집단상담
- 내용 : 주요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효율적인 대처 행동학습

□ 세부내용

- 주요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능력을 증진한다.
 - 한국민 가족과 친척,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파악
 - 부부갈등, 문화차이, 살림, 관공서 이용, 한국음식 만들기, 명절, 제사, 배우자 부모 부양, 친척집 방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 주요 생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한다.

-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관련인의 부덕 보다는 문화적 차이, 적응과 정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한다.
 - 자신의 대처행동이 효과적이지 그렇지 못한 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비효과적이거나 역기능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학습하여 대처능력을 증진시킨다.
 -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학습한다.
 -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가진다.
-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 통반장, 이웃 어른 등과 인사할 기회를 갖는다.
 - 스트레스와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여성가족상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법률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제 | 세부내용 | 비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참여자 상호소개, 프로그램 목표 소개 등 | 어색함 깨기 활동 |
| 2 | 문화차이를 극복한 행복한 결혼생활 사례 듣기 | 성공적인 결혼이민자 선배의 경험담 듣기 | |
| 3 | 낯선 땅에서의 희망과 좌절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결심과정에서 가졌던 희망 나누기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수 있는 갈등, 마찰, 불안 등 나누기 | 희망 나누기와 스트레스 나누기의 균형유지하기 |
| 4 | 낯선 땅에서의 희망과 좌절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한 점 나누기 · 배우자 가족, 친척, 이웃과의 갈등 나누기 | 고마움과 갈등의 균형 유지하기 |

| 차시 | 주제 | 세부내용 | 비고 |
|----|------------------------|--|------------------|
| 5 | 나의 친밀관계 형성, 유지 기술 점검하기 |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 대인관계 기술 측정도구의 활용 |
| 6 | 나의 친밀관계 형성, 유지 기술 배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에서의 대인관계 예절 배우기 • 한국인과의 대인관계에서의 경청, 공감, 자기표현 등 생산적 대화기술 익히기 | 역할놀이 기법의 적용 |
| 7 | 나의 갈등해결 전략 점검하기 | 대인관계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대처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 역할놀이 기법의 적용 |
| 8 | 생산적인 갈등해결 방식 익히기 1 | 배우자, 가족, 친척, 이웃과의 갈등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익힌다. | 모델관찰 학습 |
| 9 | 생산적인 갈등해결 방식 익히기 2 | 상동 | |
| 10 |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 가족간의 갈등, 폭력 등의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화접촉 해보기 | |
| 11 | 가족 초청 잔치 | 배우자, 가족 등을 초청하여 그동안 배웠던 것을 나누기 | 연속 4-6시간 진행 |
| 12 | 멋진 시작을 위한 다짐 | 집단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나눈다. | 연속 4시간 진행 |

* 매주 2시간씩 12주 동안 진행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
-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의 행복 증진
- 충남도정의 이미지 제고

(2) 육아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

-
- ◇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육아 및 자녀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국제결혼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 ◇ 이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도와 국내생활에 정착,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동 청소년의 학교 적응 촉진을 조력할 필요가 있다.
-

□ 개요

- 운영기간 : 임신 기간 동안 5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입학 전 5주, 초등학교 입학 전 5주, 중학교 입학전 5주 총 20주
- 대상
 - 임신한 결혼이민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입학 자녀, 초등학교 입학자녀, 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전원
 - 이질(혼합) 집단으로 구성하여 서로 배우고 도우며, 관련된 문제를 미리 겪을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상 개방형 집단으로 구성함(개방형 집단은 집단상담이 지속적으로 열리며,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음)
-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집단교육과 집단상담
- 내용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에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술의 제공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에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극복방안 모색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에서의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과 극복방안 모색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에서 관련인과 접촉기술 증진

□ 세부내용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에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술의 제공
 -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술 중에서 이미 습득하고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확인하고 습득이 요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술에서 결혼이민자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에 과정에서 스트레스 인식과 극복방안 모색
 - 관련된 영역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예측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습한다.
 - 관련된 영역에서의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에서의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과 극복방안 모색
 - 관련된 영역에서 문화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을 인식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한다.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에서 관련인과 접촉기술 증진
 -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관련인들과 미리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사시에 보다 쉽게 의논하고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계획(예시)

| 중심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임신/출산 대비 | 1 | 오리엔테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소개 · 집단의 목적 소개 | 중간참여자를 위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온라인 카페에 게시해둠 |
| | 2 | 태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태교 목적과 방법 · 결혼이민자 조국과 한국의 태교 목적과 방법의 비교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보기를 숙제로 내어줌. · 양국의 태교문화 비교 워크지 제공 |
| | 3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의료기관 도움 받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검사와 병의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사고 예방 교육 | |
| | 4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부부관계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부부관계, 성생활에 대한 교육 | 부부가 함께 참여 |
| | 5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 이해 |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참여 |
|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대비 | 6 | 한국의 유아교육의 목적과 특징 알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유아교육의 목적과 특징 이해하기 ·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이해하기 | 관련된 기관 방문하여 참여관찰하기 |
| | 7 | 유아교육기관에 요구하는 법 배우기 | 자녀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도움 요청하는 법을 연습한다. | 역할극을 통한 연습 |
| | 8 | 유아와 의사소통 | 유아의 특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모델에 대한 관찰학습 · 역할극을 통한 학습 |
| | 9 | 가정에서 유아의 생활지도 |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 영역, 과정, 구체적인 기술을 익힌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토론 · 역할극 |
| | 10 | 육아과정에서 부모 협력 | 육아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일치와 불일치를 점검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배운다. | 부부 함께 참여 |

| 중심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초등 학교 입학 대비 | 11 | 한국초등교육의 목적과 특징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초등교육의 목적과 특징 이해하기 • 한국의 초등교육기관의 특성이해하기 | 관련된 기관 방문하여 참여 관찰하기 |
| | 12 | 교사와 접촉하는법 배우기 |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도움 요청하는 법을 연습한다. | 역할극을 통한 연습 |
| | 13 | 초등학생과 의사소통 | 초등학생의 특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모델에 대한 관찰학습 • 역할극을 통한 학습 |
| | 14 |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영역, 과정, 구체적인 기술을 익힌다. • 관련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토론 • 역할극 • 청소년상담기관 안내책자 |
| | 15 | 초등학생 자녀교육 과정에서의 부부 협력 | 초등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일치와 불일치를 점검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배운다. | 부부 함께 참여 |
| 중학 교 입학 대비 | 16 | 한국 중학교의 목적과 특징 이해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중학교 교육의 목적과 특징 이해하기 • 한국의 중학교의 특성이해하기 | 관련된 기관 방문하여 참여 관찰하기 |
| | 17 | 중학교 교사와 접촉하는 법 배우기 | 자녀들이 중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도움 요청하는 법을 연습한다. | 역할극을 통한 연습 |
| | 18 | 중학생과 의사소통 | 중학생의 특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모델에 대한 관찰학습 • 역할극을 통한 학습 |
| | 19 |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영역, 과정, 구체적인 기술을 익힌다. • 관련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토론 • 역할극 • 청소년상담기관 안내책자 |
| | 20 | 사교육기관 이용하기 | 필요한 경우에 사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 |

□ 기대효과

- 성공적인 육아 능력 배양
-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조력

(3) 배우자 등 관련인 대상 프로그램

-
- ◇ 국제결혼자들은 부부간 문화 차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 ◇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폭력, 결혼생활불만족, 이혼 등의 곤란을 겪게 된다.
 - ◇ 국제결혼자들이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문화차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
-

□ 개 요

- 운영기간 : 국제결혼 후 1-12주 사이
- 대 상 : 결혼이민자 배우자(때로는 동거 가족, 친척이 포함될 수 있음)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단교육과 집단상담
- 내 용 :
 - 외국인과의 부부생활에서 겪는 만족감과 스트레스를 이해한다.
 - 외국인과의 부부생활에서 겪는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 외국인과의 부부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세부내용

- 외국인 배우자와 부부생활에서 겪는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능력을 증진한다.
 - 부부갈등, 살림 및 돈 관리, 선호하는 음식 차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인식한다.
- 주요 생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한다.
 -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관련인의 부덕 보다는 문화적 차이, 적응과정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한다.
 - 자신의 대처행동이 효과적이지 그렇지 못한 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비효과적이거나 역기능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학습하여 대처능력을 증진시킨다.
 -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학습한다.
 -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가진다.
-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 스트레스와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여성가족상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법률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참여자 상호소개, 프로그램 목표 소개 등 | 어색함 깨기 활동 |
| 2 | 문화차이를 극복한 행복한 결혼생활 사례 듣기 | . 외국인 배우자와 성공적인 결혼생활 경험담 듣기 | |
| 3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의 희망과 좌절 나누기1 |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결심과정에서 가졌던 희망 나누기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 과정에서 겪었던 겪을 수 있는 갈등, 마찰, 불안 등 나누기 | 희망 나누기와 스트 레스 나누기의 균형 유지하기 |
| 4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 의 희망과 좌절 나누기 2 |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좋은 점 나누기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 갈등 나누기 | 좋은 점과 갈등의 균 형 유지하기 |
| 5 | 나의 친밀관계 형성, 유지 기술 점검하기 | .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 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 대인관계 기술 측정 도구의 활용 |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6 | 나의 친밀관계 형성 , 유지 기술 배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배우자와 나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희망 등을 서로 나누기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경청 , 공감 , 자기표현 등 생산적 대화기술 익히기 | 부부 함께 참여 |
| 7 | 나의 갈등해결 전략 점검하 기 | · 외국인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대 처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 역할놀이 기법의 적용 |
| 8 | 생산적인 갈등해결 방식 익 히기 1 | · 외국인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해서 생산적으 로 대처하는 기술을 익힌다. | 모델관찰 학습 |
| 9 | 생산적인 갈등해결 방식 익 히기 2 | 상동 | |
| 10 |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화접촉 해보기 | |
| 11 | 가족 초청 잔치 | 배우자, 가족 등을 초청하여 그동안 배웠던 것 을 나누기 | 연속 4-6시간 진행 |
| 12 | 멋진 시작을 위한 다짐 | 집단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을 지 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나눈다. | 연속 4시간 진행 |

☐ 기대효과

- 국제 결혼한 부부의 행복 증진
- 충남도정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4)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추수관리 및 지도 인력 양성

-
- ◇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부갈등, 외국인 배우자와 가족들간의 갈등,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등 많은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
 - ◇ 이들에 대해서 단기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
 - ◇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국제결혼가정 대상 추수관리 및 지도자(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집단교육과 상담, 실습
- 내 용 :
 - 국제결혼가정의 문제, 갈등,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상담 및 지도 실습

□ 세부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문제, 갈등,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 국제결혼가정의 결혼이민자의 적응 스트레스, 부부갈등,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실태, 양상, 원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회상담 및 단기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교육한다.
- 상담 및 지도 실습
 - 실무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실습을 실시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상호소개 교육목적 소개 | |
| 2 | 결혼이민자의 적응 스트레스 |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곤란함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3 |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4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스트레스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또래관계 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의 실태, 양상, 원인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5 | 국제결혼가족과의 관계형성 방법 | 국제결혼가족들과 상담을 위해서 관계형성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6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과정 | 단회 및 단기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7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기법 | 상담기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8 | 실습 1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9 | 실습 2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10 | 실습 3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기대효과

-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양
-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
- 충남도정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2) 다문화인(국제결혼자녀)

(1) 다문화인 또래 관계 형성 및 적응 프로그램

-
- ◇ 다문화인은 피부색의 차이, 문화차이로 인하여 또래관계 형성 및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 ◇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이탈, 학교폭력 피해자 등의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
 - ◇ 따라서 이들에게 친구사귀기, 친구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다문화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다문화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집단구성원을 이질집단으로 구성한다.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단교육과 상담
- 내 용 :
 - 또래관계 형성 기술을 제공한다.
 - 또래관계 증진 기술을 제공한다.
 - 또래관계 갈등관리 기술을 제공한다.
 - 또래관계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 상담기관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인 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이 또래관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지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세부내용

- 또래관계 형성 기술을 제공한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낯선 친구들과 어울리는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낯선 친구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거절당할 것 같은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다.
- 또래관계 증진 기술을 제공한다.
 - 또래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놀이에 대한 교육, 대인관계 기술(공감, 경청, 자기주장, 놀이 참여 초청) 등을 가르친다.
- 또래관계 갈등관리 기술을 제공한다.
 -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래 감정 존중, 주장적 거절, 주장적 요청의 기술을 가르친다.
 -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기술, 사과하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 또래관계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 상담기관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또래관계에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문화인 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이 또래관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지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 상호 소개 · 프로그램 개요 소개 | |
| 2 |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사귀 수 있어요. | · 친구들을 성공적으로 사귀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다문화인의 경험담 듣기 | |
| 3 |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사귀 수 있을까? | · 낯선 또래와 관계 트기 <먼저 인사하기, 진행 중인 놀이에 참여의사 표시하기, 도움 요청하기, 도움 주기 등 연습> | · 상황별 역할놀이 연습 |
| 4 |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거절 받을까 두려워요. | · 낯선 또래와 관계형성과정에서의 부정적 감정 노출하고 극복하기 <부정적 감정을 과장해보기, 부정적 감정의 타당성 따져보기> | · 상황별 역할놀이 연습 |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5 |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 <p>· 사귀 친구들과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 익히기</p> <p><놀이예 초청하기, 놀이기술 발전시키기, 친구 말 잘 들어주기, 거절할 때 나-메세지 사용하기 등></p> | · 상황별 역할 놀이 연습 |
| 6 | 이렇게 하면 친구관계가 멀어지지요. | <p>· 친구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알아서 미리 조심하는 법 배우기</p> <p><비밀유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기, 비방하지 않기, 헛된 약속하지 않기></p> | · 상황별 역할 놀이 연습 |
| 7 | 다들 때, 싸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 <p>· 갈등관리 기술을 배우기</p> <p><주장적 거절, 타협하기, 화내지 않고 화난 감정 말하기 등></p> | 상황별 연습 |
| 8 | 힘들 때 이런 곳에 의논 하세요. | <p>· 갈등이 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기</p> <p>-지역사회 상담 기관 이름, 연락처, 하는 일 알기</p> <p>-전화상담 경험해보기</p> | 전화상담 경험해보기 |
| 9 | 어머니, 아버지 나의 이런 것 알아주세요. | 부모를 초청하여 그동안 배우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부모초청 |
| 10 | 다짐하는 마무리 |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정리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 종결모임 |

□ 기대효과

- 다문화인의 또래관계 적응 촉진.
- 다문화인의 비행행동, 이탈행동, 학교 부적응 예방

(2) 다문화인 학교적응 및 학습 적응 프로그램

-
- ◇ 다문화인이 선수학습의 결손, 언어 학습의 결손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특히 학업발달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 ◇ 학교부적응과 학업부적응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들은 진로발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후에도 사회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겪는다.
 - ◇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적응 및 학습적응을 조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실시
- 대 상 : 학교부적응과 학업부적응을 겪는 다문화인 학생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집단교육과 상담
- 내 용 :
 - 다문화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교생활과 학습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안내한다.
 -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보다는 적응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로 재귀인하도록 안내한다.
 - 학교생활과 학습에 적응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 세부내용

- 다문화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교생활과 학습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안내한다.
 -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에 대한 태도, 수업시간에서의 행동, 숙제, 시험공부 하기 등과 관련된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행동,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도록 한다.
 - 위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목표와 목표달성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한다.
-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보다는 적응상의 문제, 환경

상의 문제로 재귀인하도록 안내한다.

- 학생들은 흔히 부적응을 개인의 능력의 부족, 성격결함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적응을 더욱 더 악화시킨다.
- 학생들로 하여금 부적응 역사를 다시 검토하여 부적응의 원인의 개인의 결함보다는 적응상의 과제,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적응 준비 부족으로 지각하게 하여 적응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 학교생활과 학습에 적응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 교사와의 관계 기술, 학교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 규칙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을 통해서 학교적응을 촉진한다.
 - 독서기술, 이해전략, 시험준비 기술 등을 학습하도록 하여 학습에서 보다 긍정적인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관련된 지원 기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 상호소개 · 프로그램 목적 소개 등 | |
| 2 | 선생님과 관계 개선하는 방법 | · 선생님의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 탐색한다. ·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교육한다. ·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와 태도를 익힌다. | · 브레인스토밍 · 역할놀이 학습 |
| 3 | 학교규칙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 · 학교규칙에 대한 감정을 토로한다. · 학교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한다. · 학교규칙을 어길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탐색한다. | · 역할놀이 학습 · 인지적 확장 학습 |
| 4 | 학교 공부에서의 성취 경험 나누기 | · 학교 공부를 잘했거나 열심히 했던 순간들을 회상해보고, 그과정에서의 감정을 탐색해본다. 이를 통해서 성공경험을 확장할 계기를 만들어준다. | · 과거로 여행 기법 · 미래로 여행 기법 |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5 | 학 교 공 부 에 서 곤란한 점 나누기 | · 학교공부를 하는 동안 겪는 곤란한 점을 나누고 구체화한다. | |
| 6 | 독서전략 익히기 | · 자신의 독서전략을 반성적으로 평가해보게 한다. · 보다 효과적인 독서전략을 익히고 연습한다. | 독서 기술 연습 |
| 7 | 시간계획 및 관리 기술 익히기 | · 자신의 하루생활, 일주일 생활 등의 활용 스타일을 확인한다. · 자신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시간관리를 조력하는 부모, 또래들과 계약한다. | 행동계약 |
| 8 | 만족지연 전략 익히기 | · 만족지연이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식한다. · 효과적인 만족지연 전략을 익힌다. · 효과적인 만족지연을 조력하는 사람들과 계약한다. | · 행동계약 연습 · 자기관찰, 자기 보상 연습 |
| 9 | 부모 초청 | 부모를 초청해서 그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 | 부모초청잔치 |
| 10 | 마무리 | 집단상담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정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

□ 기대효과

- 다문화인의 학교생활적응 촉진
- 다문화인의 학교부적응, 비행, 이탈의 예방.

(3) 다문화인 관련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
- ◇ 다문화인들은 또래들과의 관계 문제, 학습 결손 문제, 교사와의 관계 소외 문제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 ◇ 이런 문제들은 다문화인의 언어 습득의 결손, 적응 기술의 부족뿐만 아니라 또래의 편견, 학교의 지원 부족, 교사들의 몰이해 등 때문에 발생한다.
 - ◇ 따라서 다문화인의 또래, 학교관계자, 교사들이 다문화인들의 문화, 생활스트레스를 이해하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2시간
- 대 상 : 다문화인이 속한 학급 전원
- 방 법 : 파견된 상담자가 운영하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 내 용 :
 - 다문화인이 속한 학급원과 담임교사들이 다문화인의 문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이해하도록 한다.
 - 다문화인이 다문화인에 대한 또래와 담임교사의 정서, 생각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문화인과 학급학생 및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세부내용

- 다문화인이 속한 학급원과 담임교사들이 다문화인의 문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이해하도록 한다.
 - 다문화인들의 가정생활, 또래관계, 학업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그것에 대한 다문화인의 대처행동을 사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학급단위 집단상담 전에 미리 읽어오도록 한다.

-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과정에서 읽어온 것을 토대로 토론한다.
- 다문화인이 다문화인에 대한 포레와 담임교사의 정서, 생각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문화인들이 속한 학급의 포레들과 교사들이 다문화인에 대한 기대, 정서, 생각 등을 사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학급단위 집단상담 전에 미리 읽어오도록 한다.
-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과정에서 읽어온 것을 토대로 토론한다.
- 다문화인과 학급학생 및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서로 도울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여 상호부조 계약을 맺는다.

☐ 교육계획

※ 단회 집단상담이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따로 명시할 것은 없음.

☐ 기대효과

- 다문화인의 적응 촉진
- 다문화인의 관련자(포레학생, 교사)의 다문화인에 대한 이해 촉진
- 다문화인이 속한 학급의 학급공동체 정신 함양

(4) 다문화인에 대한 추수관리 및 지도 인력 양성

-
- ◇ 다문화인은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업결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 ◇ 이들에 대해서 단기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
 - ◇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다문화인 대상 추수관리 및 지도자(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 국제결혼인 대상 추수관리 및 지도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집단교육과 상담, 실습
- 내 용 :
 - 다문화인의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업문제 적응 등에 대한 교육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상담 및 지도 실습

□ 세부내용

- 다문화인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적응, 학업 적응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회상담 및 단기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교육한다.
- 상담 및 지도 실습
 - 실무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실습을 실시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상호소개 교육목적 소개 | |
| 2 | 다문화인의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 다문화인이 겪는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3 | 다문화인의 또래관계 스트레스 | 다문화인의 또래관계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4 | 다문화인의 학교/학업 적응 스트레스 | 다문화인의 학교 적응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5 | 다문화인과의 관계 형성 | 다문화인들과 상담을 위해서 관계형성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6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과정 | 단회 및 단기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7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기법 | 상담기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8 | 실습 1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9 | 실습 2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10 | 실습 3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기대효과

- 다문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양
-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
- 충남도정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3) 외국인 근로자

(1) 직장 및 생활 적응 프로그램

-
- ◇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 일상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이런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 ◇ 이들이 직장과 생활에 만족스럽게 적응하여 즐겁게 일하고,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 방 법 : 온라인 중심 집단교육과 상담+ 간헐적으로 오프라인 집단상담
- 내 용 :
 - 직장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직장내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직장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법적,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건전한 여가생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세부내용

- 직장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이 give and take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고용주, 직장동료들의 요구나 바람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방안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주와 직장동료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요령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직장내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고용주, 직장동료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명시적, 암시적 갈등을 목록화하여 갈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탐색한다.
 -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탐색한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를 목록화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다짐한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를 겪을 때 활용가능한 지지자원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다.
- 직장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법적,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직장내 부당 대우의 내용(임금체불, 학대 등)을 숙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 직장내 부당 대우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숙지한다.
 - 직장내 부당 대우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화접촉을 해본다.
- 건전한 여가생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여가생활을 보내는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 탐색한다.
 - 보다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관련된 기술을 익힌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제 | 세부내용 | 비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 상호소개 · 프로그램의 목적 소개 | |
| 2 | 직장내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하기1 | ·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이 give and take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고용주, 직장동료들의 요구나 바람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방안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 역할놀이 연습 |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3 | 직장내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하기2 | · 고용주와 직장동료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요령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구체적으로 I-Message 연습하기 | · 역할놀이 연습 |
| 4 | 직장내 갈등관리 방법 1 | · 직장내 갈등관리 양상을 목록화해보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 갈등에 대한 기존의 대처전략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예측해보기 · 생산적인 갈등해결 양식 배우기 | · 강의 듣기 · 브레인스토밍하기 |
| 5 | 직장내 갈등관리 방법 2 | · 상황별 생산적인 갈등해결양식 연습해보기 | 역할놀이 기법 |
| 6 | 한국생활 즐겁게 하기 |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를 목록화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다짐한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일상생활상의 적응문제를 겪을 때 활용가능한 지지자원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다. | · 관련기관 전화접촉 해보기 |
| 7 | 부당 대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 · 직장내 부당 대우의 내용(임금체불, 학대 등)을 숙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 직장내 부당 대우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숙지한다. · 직장내 부당 대우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화접촉을 해본다. | · 결과예측기법 활용 · 전화접촉해보기 |
| 8 | 건강한 여가생활 누리기 | · 여가생활을 보내는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 탐색한다. · 보다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관련된 기술을 익힌다. | 미래여행기법 활용 |
| 9 | 고용주들과의 대화 | 그동안 집단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고용주나 직장동료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고용주와 함께 참석 |
| 10 | 다짐하기 |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실천과정에서 곤란한 점이 있을 때 다시 접촉할 것으로 다짐하기 | 종결모임 |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정착
-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범죄 예방
- 충남도정과 한국 이미지 제고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
- ◇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 일상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이런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 ◇ 이들이 부적응과 스트레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미숙, 적응 기술 결함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직장동료들의 편견, 몰이해, 부당한 대우 때문이기도 하다.
 - ◇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는 고용주와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4주
- 대 상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동료들
- 방 법 : 외국인 근로자 근로현장 방문 교육
- 내 용 :
 - 고용주와 직장 동료 문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부적응 사례에 대한 교육
 -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사항 청취 기회 마련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교육

□ 세부내용

- 고용주와 직장 동료 문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부적응 사례에 대한 교육
 - 고용주와 직장 동료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부적응, 이탈, 범죄 등에 대한 사례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와 직장 동료의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 관련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사항 청취 기회 마련

-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를 외국인 근로자가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교육

-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이 알아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각종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 과정 |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 과정의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 |
| 2 |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 스트레스 | .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 스트레스 특히,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이 야기하는 적응 스트레스를 사례별로 제시한다. | |
| 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 기대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 |
| 4 | 관련 법률 교육 | . 근로기준법, 등을 관련 법률에 대해 교육한다. | |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 촉진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및 직장 동료들의 이해 증진
-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 이탈, 부적응 감소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수관리 및 지도자 양성교육

-
- ◇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생활 적응, 한국생활에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겪는다.
 - ◇ 이들에 대해서 단기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
 - ◇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추수관리 및 지도자(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집단교육과 상담, 실습
- 내 용 :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적응, 한국생활 적응,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상담 및 지도 실습

□ 세부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적응, 한국생활 적응,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추수관리와 지도에서 핵심적인 직장생활 적응, 한국생활 적응, 그들을 돕는데 필요한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사례를 통해서 익히도록 한다.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회상담 및 단기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교육한다.
- 상담 및 지도 실습
 - 실무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실습을 실시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상호소개 교육목적 소개 | |
| 2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스트레스 |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3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스트레스 | 거주 정하기, 음식, 여가생활 등 한국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해서 익히고 확인한다. | |
| 4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각종 법률 정보를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5 | 다문화인과의 관계 형성 | 외국인 근로자와 상담을 위해서 관계형성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6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과정 | 단회 및 단기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7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기법 | 상담기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8 | 실습 1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9 | 실습 2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10 | 실습 3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양
-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
- 충남도정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4) 새터민(탈북자)

(1) 생활 적응 대처 교육 프로그램

-
- ◇ 새터민들이 국내생활 적응 과정에서 직장생활 적응, 경제 관리,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 ◇ 이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적응과정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알콜중독, 범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 ◇ 이들이 국내생활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에서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새터민과 새터민 2세
- 방 법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집단상담과 교육
- 내 용 :
 - 새터민이 생활의 중요한 장면에서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남한의 특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새터민이 남한에서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경제관리, 대인관계 등의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새터민이 남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세부내용

- 새터민이 생활의 중요한 장면에서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남한의 특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새터민이 남한에서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경제관리, 대인관계 등의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새터민이 남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제 | 세부내용 | 비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소개 집단상담 목적과 과정 소개 | |
| 2 |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생활영역에서 남/북한의 공통점을 인식한다. 주요생활영역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을 인식한다. | |
| 3 | 남한 직장에서의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 직장에서의 직원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그것과 비교한다. | |
| 4 | 남한에서의 경제생활의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에서의 경제관리를 북한에서의 그것과의 차이점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 |
| 5 | 남한에서의 대인과의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에서의 대인관계를 북한에서의 그것과의 차이점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 |
| 6 | 남한 생활에 대한 대처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자신들이 대처행동을 목록화하고 그것의 효과를 평가한다. | |
| 7 | 남한 직장생활에서의 대처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에서의 직장생활에서의 곤란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의 효과를 평가한다. | |
| 8 | 남한에서의 경제관리 대처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에서의 경제 관리에서의 곤란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의 효과를 평가한다. | |
| 9 | 남한에서의 대인관계 대처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에서의 대인관계에서의 곤란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의 효과를 평가한다. | |
| 10 | 종합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운 점 나누기 미진한 부분 확인하기 배운 대로 살기 다짐하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력받는 방법 확인하기 | |

□ 기대효과

-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 촉진
- 새터민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방과 부적응 행위의 예방

(2) 새터민에 대한 추수관리와 지도자 양성 교육

-
- ◇ 새터민이 남한의 직장생활 적응, 남한생활에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겪는다.
 - ◇ 이들에 대해서 단기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
 - ◇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 개 요

- 운영기간 : 10주
- 대 상 : 새터민 대상 추수관리 및 지도자(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방 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집단교육과 상담, 실습
- 내 용 :
 - 새터민의 직장생활 적응, 남한생활 적응, 관련 사회복지정책 및 법률에 대한 교육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상담 및 지도 실습

□ 세부내용

- 새터민의 직장생활 적응, 한국생활 적응, 사회복지정책과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새터민 적응 촉진에서 핵심적인 직장생활 적응, 남한생활 적응, 그들을 돕는데 필요한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법률에 대한 교육을 사례를 통해서 익히도록 한다.
- 단회 및 단기 상담 교육
 -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회상담 및 단기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교육한다.
- 상담 및 지도 실습
 - 실무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실습을 실시한다.

□ 교육계획(예시)

| 차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고 |
|----|------------------------|--|----|
| 1 | 오리엔테이션 | 상호소개 교육목적 소개 | |
| 2 | 새터민의 직장생활 스트레스 | 새터민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 해서 익힌다. | |
| 3 | 새터민의 남한생활 스트레스 | 거주 정하기, 여가생활 등 한국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 겪는 스트레스를 사례를 통해서 익히고 확인한다. | |
| 4 | 새터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법률 | 새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각종 법률 정보를 사례 와 판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5 | 새터민과의 관계 형성 | 새터민 상담을 위해서 관계형성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 힌다. | |
| 6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과정 | 단회 및 단기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7 | 단회 및 단기 상담의 기법 | 상담기법을 사례를 통해서 익힌다. | |
| 8 | 실습 1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9 | 실습 2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10 | 실습 3 | 모의사례를 통해서 실습한다. | |

□ 기대효과

- 새터민의 안정적 적응
- 충남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제고

3. 문화교육

1) 문화이해교육-적응 촉진

-
-
- ◇ 거주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다문화의 균형감 있는 통합적 교육
-
-

□ 개요

- 운영기간 : 수준별, 능력별, 국적별, 프로그램별 상시 운영
-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거주외국인
- 방법
 - 프로그램별 대상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교육
 -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적 교재 문화가이드북 및 생활안내책자 발행
 - 한국어 교육자와 통역자의 교차수업
 - 이웃 가정과의 자매결연사업(Host Program) 및 1:1 멘토링
- 내용 : 생활문화이해교육, 사회문화이해교육, 전통문화체험학습, 다문화가족축제

□ 세부내용

- 생활문화이해교육
 - 가정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생활정보 제공
 - 가족관계 및 예절, 음식, 생활양식 등
 - 행정 서비스 등 생활전반의 문화
 - 자녀 양육 및 학교생활적응
 - 남편 및 시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상호 문화이해교육

○ 사회문화이해교육

-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치유 시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실시(여성가족부)
- 명절 및 관혼상제 등의 일반적인 사회문화이해교육(유네스코자료)

○ 전통문화체험

- 박물관 교육
-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한 전통문화체험
- 16개 문화체험 프로그램(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축제

- 본국 음식 및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 각국의 (전통)음악 감상실, (전통)의상 전시회 등 상설 운영
- 각국의 영화 상영

□ 교육계획(예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전통음식강좌 | 김치, 한과·떡, 전통음료 | 연 1~4회 |
| 전통문화특강 | 문화유산이해하기 | 연 1~4회 |
| 다례체험 | 전통 차 및 생활예절, 한복착용 법, 절하기 등 기본예절 | 주1회60분 |
| 문화재답사 | 가족단위 답사 | 연 2회 |
| 민요체험 | 흥겨운 우리 민요 배우기 | 주1회60분 |
| 전통예술관람 | 판소리, 한국 춤, 기악, 타악 등 | 월1회60분 |

□ 기대효과

-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 적응에 기여
- 학습활동 및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 및 공동체의식 형성
-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아 정체성 확립

2) 다문화(국제)이해 교육-유네스코한국위원회 CCAP

-
- ◇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한국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 ◇ 주한 외국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연대 의식 강화
-

□ 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대상 : 주한외국인 및 한국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
- 방법
 - 거주 외국인 및 한국학생의 자원봉사자 활용
 - 국내 초·중·고 참여 희망 학교 중심
 - 지방 협력기관 활동 매뉴얼 발간
 - 지방협력기관 지원 및 신규 지방협력기관 발굴
- 내용

□ 세부내용

- 정규수업 : 거주 외국인이 한국학생에게 그들의 문화 소개 수업
- 오리엔테이션 : 새로운 참가자, 자원봉사자, 교사들과의 만남
- 워크숍 : 주제별 강의 및 토론, 모범 수업 사례 발표 및 평가
- 여행자단(caravan) : 자원봉사자와 참여 학생들과의 답사 및 캠프
- 친목회 :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친목 도모 및 상호이해
- 감사만찬

□ 교육계획(예시)

| 주 제 | 세부내용 | 비 고 |
|--------------|--|------------------------------|
| 정규수업 | 거주외국인이 한국학교 방문 문화 소개 및 이해 교육 | 참가학교별 월 1회(학기:4~6월 9~11월) |
| 오리엔테이션 | 신규 참가학교 및 신규 외국인, 한국인 자원봉사자간 교육 | 신규참가학교 대상 연 1회, 신규 자원봉사자 월1회 |
| 워크숍 | -다문화이해, 인권, 상생등 강의, 토론 -모범 수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문화교류 | 4월, 6월, 10월 |
| 캐러번(caravan) | 문화재, 역사현장 순례 및 답사 | 연3회 |
| 감사만찬 | | 12월 중 |

□ 기대효과

- 국내 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 및 올바른 문화간 이해 증진
- 한국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들의 문화간 이해 능력제고
- 자원봉사자의 책임감 및 사기 진작

3)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
-
- ◇ 재외국민과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
 - ◇ 고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 및 우리전통문화 보급
-
-

□ 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대상 : 재외국민과 동포
- 방법
 - 교육인적자원부, 해외한국문화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
 -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 박물관교육
- 내용
 - '한스타일'문화프로그램 :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국악 등
 - 한국전통문화와 깊이 있는 정신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 홈스테이 프로그램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 세부내용

- '한스타일'문화프로그램 : 한국문화 원형에 가까운 프로그램
 - 한글(언어교육 참조),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국악)
- 템플스테이
 - 스님들의 수행생활 체험
 - 발우공양과 다도, 대장경의 인경과 탁본, 선무도 체험
- 홈스테이 : 한국 가정에 머무르며 생활문화체험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 박물관 및 역사 유적지 탐방

□ 교육계획(예시)-템플스테이

| 차시 | 주제 및 내용 | 비 고 |
|----|---------------|-----------------------|
| 1 | 입제식/회향식/수계식 | 매주 토, 일요일 연중 상시 운영 |
| 2 | 스님과의 대화 및 차담 | |
| 3 | 참선지도 및 강의 | |
| 4 | 예불 및 불전 사물 지도 | |
| 5 | 다도 체험 | |
| 6 | 발우공양 습의 및 지도 | |
| 7 | 불교 교리 및 사찰 예절 | |
| 8 | 불교무술지도 | |

□ 기대효과

- 이상적인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우리 전통 문화 보급과 전파에 긍정적 효과
- 한국 전통 문화 발굴

참 고 문 헌

- 경기도청 공지뉴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농촌의 파수꾼”으로 거듭난다 공지/뉴스
2007/01/20 10:28
- 공주대학교(2006). ‘한민족국제교육연구소’ 설립 계획.
- 곽병찬(2006). 외국인 노동자는 한글 무화권역 확대의 첩병.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토론 자료
- 구본용 외(1998). 가족상담 기법 II 연구.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광익(1998). 다문화주의 시각.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제3장.
- 김계연(1990).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 성원사.
- 김교빈(2005). 문화콘텐츠가 최고의 수출상품이다. 국정브리핑 김교빈칼럼.
- 김명곤(2006).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축사 발표문
- 김병석(1997). 가족상담기법 I 개발연구.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정민(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에서 사용되는 ‘호칭’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 김진숙 외(1999). 가족상담 기법연구 III.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혜숙 외(1996). 자기관리기법1.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 케네스 타이(편저)(1997). 학교에서의 세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미국에서의 세계교육
성공사례. 서울 : 오름.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6). ‘농촌생활가이드’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
합 지원 대책』 보고서.
- 대전일보(2006). 다민족·다문화 국가관 세워야. 2006.11.21
- 문화관광부(2005). 한국 전통 문화 콘텐츠 세계화 전략. 국어민족문화과.
- 문화콘텐츠진흥원(2006). 2006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9)지역문화전망.
- 박경애 외(1998).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개발연구.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민수(2002). 21세기 문화 자산의 정신성과 경제성.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문화복
지 학술지 논문. vol.135

- 박성범(2005). 혼혈인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성범의원실.
- 박승민(1993). 갈등관리훈련을 통한 대인간 갈등대처방식의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1995).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사
- (1997). 우리의 이념·가치성향과 정치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박천웅(2006). 다문화 사회의 제3의 정체성과 '코시안'. 안산.
- 버지니아 사티어 (저) 성문선, 송준 (역)(1988).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만들기. 서울 : 홍익재.
- 보건복지부(2006).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 부산일보(2007). 세종학당. 2007.1.13
- 서인원(1998). 비슬산 영남문화촌 개발구상(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세계일보(2006). 충남 '외국인 지원조례' 첫 시행. 2006.11.23.
- 신미정(2005). 대구광역시 영어마을 조성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검토. 대구경북연구원.
- 식서충(2006). 골치아픈 상대를 다스리는 심리학. 서울 : 팜파스.
- 신경희(2005). 국제결혼 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 정책대학원.
- 여성가족부(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안.
- 연합뉴스(2006). 이젠 '다민족·다문화국가'.통합 정책지원 빈약.
- 연합뉴스=대전(2007). 백제역사재현단지 테마파크로 조성. 2007.1.23.
- 윤사순(1992).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 을유문화사.
- 이선근(1978). 한국의 민족문화 : 그 전통과 현대성(이선근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16)
- 이수원(1993). 갈등관리 훈련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이숙영 외(1996). 청소년 시간, 정신에너지 관리 훈련 프로그램(개정판)넘치는 에너지, 규
모있는 생활. 서울 :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장협(2006). 동북아시아 지역 한국어 보급 방안.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회 기조 발표문
- 이재규(2005).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전홍식(2006).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자. 부산. 부산일보 기고문.
- 중앙일보(2007). '민족' 때려는 진보 담론 열린 민족주의로 가나 . 2007.1.26
- 최강(2003). 해설: 왜 문화산업인가?-고용창출을 선도. 국정브리핑 기사.
- 최진영(2003).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돈민 외. 평생교육: 이론과 현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겨레(2006. 11. 23). 충남, 외국인 지원조례 만든다.
- [한겨레] '이주여성... 이주노동자센터 2005/04/04 102 이주노동자센터 "국제결혼자녀 특별 프로그램 필요" 이주노동자센터 2005/04/07 177 176.
- 홉스봄(1993).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 창작과비평사
- 홍달아기, 채옥희(2007).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 회지(충북가정학회지), 15권, 5호.
- 江淵一公(1994). 異文化教育과 比較・國際教育研究. 權藤與志夫(편).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의 교육 : 이념・제도・실천. 九州大學出版會.
- 樋口信也(1995). 國際理解教育의 課題. 東京 : 教育開發研究所.
- Boggs, D. L.(1991). Adult Civic Education. Springfield : Charles Thomas.
- <http://www.wm1366.or.kr>
- <http://www.migrantok.org/>
- <http://www.mwkw.rog>
- <http://www.vomul.or.kr>
- <http://www.kyci.or.kr>
- <http://www.jcmk.org>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이명기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 이재규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 민수정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연구조원 장정숙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협력 · 김만희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초빙연구위원
임명재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초빙연구위원
윤은기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초빙연구위원
이영구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초빙연구위원

총발언 06 · 한민족 문화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글쓴이 · 이명기 외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월 31일 / 발행 · 2007년 1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301-745)

전화 · 042-820-1104 042-820-1114(대표)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6124-001-7 93030

<http://www.cdi.re.kr>

©2006.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